영암군, 2023년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호응'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오는 12월까지 수강생 15명 매주토요일 가구·건축 등 교육

영암군은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을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의 수강생은 총 15명으로, 전통창호 및 꽃살창호의 다양한 문살을 응용한 실용적인 가구와 전통건축 등 다채로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은 7년간 총 74명을 배출한 가운데, 교육생들이 여러 공모전에 수상하는 성과를 보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이 영암 목공동호회를 결성하고 정기 회원전 개최와 매월 2회의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통해 전문 목공기술을 연마하는데 남다른 열의를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이들이 형식적인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목재 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해 목공예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이 목재산업화와 목공 전문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목포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최초로 대상에 선정됐다.

참여기관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특산물 브랜드, 공동(인증) 브랜드, 도시브랜드, 정책(지원)브랜드, 축제 부문 등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총 40개 부문 중 특산품, 축제, 도시브랜드 분야에서 22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목포시는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소비자 조사에서 8개 후보 지자체 중 최우수 점수를 획득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와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낭만항구 목포만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고하도해상데크, 근대역사문화공간, 시화골목, 목포스카이워크 등 관광자원 개발,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야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목포해상W쇼를 비롯해 오는 5월 5일과 6일 북항 노을공원에서 열리는 드론라이트쇼는 목포의 대표적 야간 관광콘텐츠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중대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무안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의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차량 소통에 방해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며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실이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밤샘 주차 불시 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차고지에 주차해 관내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 천일염 풍년 기원 고사(告祀)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4월 16일 염산면 천일염체험학습장에서 올 한 해 천일염 풍년 생산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강종만 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장은영 도의원, 군의원, 강명수 천일염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천일염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천일염 생산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번 고사에서는 천일염생산자들의 무사 안녕과 자연재해 없이 풍년 생산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염원했다.

염산면은 국내 유일의 소금명을 가진 지역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며 이곳 천일염은 청정한 갯벌과 해풍으로 인해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강명수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장은"전국 생산량 10%를 차지하는 영광 천일염은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해 감칠맛이 뛰어난 웰빙소금이다."라며,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천일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은 2023년 천일염 생산시설의 위생관리와 현대화를 위해 천일염 포장재, 친환경염전 바닥재 개선, 생산시설 자동화기계 등 천일염의 위생관리와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준비 본격화

신안군이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준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4월 12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장호찬(한국방송통신대 관광학과 교수), 강미희(국제지속가능 관광위원회 아태 총괄이사), 엄남현(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대형(에이치존 대표), 손재오(극단 갯돌 상임연출), 윤성진(페스티벌그린얼라이언스 대표), 이영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트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문화의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추진위원장에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총감독에 임동창 피아니스트를 선임하는 등 조직구성을 마쳤다.

신안군은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번 문화의달 행사의 주제를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1004섬', '예술'로 날다'로 확정하고 세부계획과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의달 행사 준비를 본격화한다.

문화의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10월을 문화의달로 지정하고 개최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는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이덕주 기자

함평군-육군보병학교,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위해 '맞손'

함평군과 육군보병학교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육군보병학교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군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지원 및 홍보 ▲보병학교 발전을 위한 훈련 및 복지지원 ▲재난 대응 시 상시 협업체계 구축 ▲문화·체육·교육 분야 교류협력 등이다.

함평=김광춘 기자